

LG화학, 3분기 매출액 1조8000억원

내수경기 부진 불구 중국수출 호조 ... 2004년 영업이익 5915억원 전망

LG화학의 3/4분기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중국수출 증가에 힘입어 호전됐다.

LG화학은 2004년 3/4분기 매출액은 2003년 3/4분기보다 38% 증가한 1조8614억원, 영업이익은 26% 늘어난 1350억원을 기록했다고 10월28일 공시했다.

경상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45%와 49% 증가한 2216억원과 1597억원을 달성했다.

LG화학은 3/4분기 실적 증가 이유로 ▷주요 석유화학제품의 해외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 호조 ▷산업재 수출 증가 ▷정보전자소재 사업의 지속 성장 등을 꼽았다.

석유화학 사업은 ABS(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), Acrylate 등 주요 석유화학제품의 국내수요는 감소했지만 해외부문이 약진을 하며 전년동기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43%, 94% 늘어났다.

산업재 사업부문은 국내 건설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PVC 창호 및 자동차부품, 하이막스 등 고부가제품 수출 증가로 매출은 12% 증가했으나 내수부진과 주요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영업이익은 감소했다.

LG화학의 경영실적(2004)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03.3Q	2004.2Q	2004.3Q	전년동기비	전분기대비
매출액	13,498	17,541	18,614	38%	6%
영업이익	1,069	1,339	1,350	26%	0.80%
경상이익	1,528	1,294	2,216	45%	71%
순이익	1,072	977	1,597	49%	63%

또 정보전자소재 사업은 오창테크노파크의 2차전지, 편광판 생산라인의 안정화에 힘입어 매출액은 75% 증가했으나 전지부분의 감가상각비 및 원재료비 부담 증가로 영업이익은 감소했다.

LG화학은 “석유화학 사업과 산업재 사업은 4/4분기에도 수출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2004년 전체 경영 실적은 매출액이 2003년보다 18% 증가한 6조7064억원, 영업이익은 23% 늘어난 5915억원으로 예상된다”고 밝혔다.

<화학저널 2004/10/29>